

교회소식

*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.

* 2012년 교회표어: 그 한사람, 그 예배자 (요한복음 4:24)

1 어린이 주일: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. 어린이는 우리 교회의 내일입니다.

2 연합예배: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교회학교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.

3 후원: 바누아트 삼마교회 학생들을 후원하는 성도들은 후원 약정서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 (계좌번호: ASB Bank: 12-3042-0352091-01 예금주: Calvary Church)

4 신청: 말씀 묵상에 필요한 생명의 삶 6월호 신청 받습니다. (한권 \$8)

5 쿠키 나눔: 밀알 장애우들이 만든 쿠키 시식코너가 다음 주에 준비됩니다. 많이 시식 바랍니다.

6 협력: 각 선교회와 교회 학교간 협력 기관입니다.

4남녀 선교회 - 유아부 1 남녀 선교회 - 아동부

2남녀 선교회 - 중고등부 3 남녀 선교회 - 청년부

7 새벽기도회: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.

8 월례회: 1남, 4여 선교회 월례회가 1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, 친교실에서 각각 있습니다.

교우소식

1 귀국: 유동연, 조향선 집사 가정

갈보리
교회가
돕는
선교지



루마니아: 김유정선교사
(집시사역)

중국: 김강한목사
(탈북자사역)

바누아투: 삼마교회 및 청소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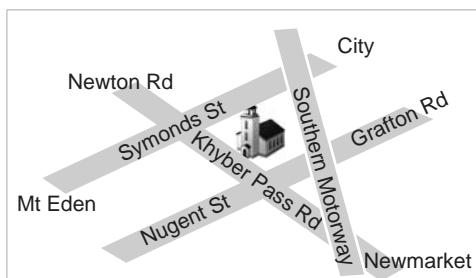


밀알장애인 봉사

예배시간 안내

예 배	시 간	장 소
주일1부예배	주일 PM 1:00	본당
주일2부예배	주일 PM 3:00	본당
수요예배	수요일 PM 7:30	본당
새벽기도	금요일 AM 5:50	Chapel
아동부	주일 PM 1:00	Chapel
중고등부	주일 PM 1:00	별관

오시는 길



2012년 5월 6일

어린이 주일

14권 19호

교회창립 1999/07/14



2012 그 날 사람 그 예배자 (요4:24)

가을 단상 - 심창진 목사

“아! 가을이다.”라고 외쳤던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새 찬바람에 몸이 움츠러들게 된다. 뉴질랜드에서 보내는 가을의 맛은 어떨까… 먼저 한국의 가을 하늘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귀소본능인가 보다. 그래도 세계 청정국가 뉴질랜드에서 느끼는 가을도 30대 후반을 보내는 한 형제의 가슴을 센치하게 할만은 한 것 같다! 누군가 그랬지…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!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가을바람은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을 스친다. 가을 햇살은 따스한 봄 햇살과는 또 다르게 우리네 삶을 비추인다. 밤하늘에 별은 또 어떠한가, 누구에게나 바닷가에 앉아 저 하늘에 별을 세던 때가 있지 아니하던가. 군대 시절, 산 위에서 바라보았던 대도시의 야경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달과 별의 하모니를 나는 늘 잊지 못한다.

그리고 시간이 흘러 새로운 땅, 뉴질랜드에서 다시금 하늘 아래 산과 바다를 내려다보며 가을을 보내고 있다.

청교도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펠전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지 못한다면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하였다. 인간 세상의 문화에 젖어가는 오늘의 세상 속에 스펠전 목사님의 의침이 맞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? 인간은 본래 다른 동물과 달리 하늘을 보기 위해 걷는 존재로 창조되었다.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인간은 하늘을 보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. 그러한 안타까움을 견디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늘에 두게 하셨다. 그러나 여전히 땅의 것에 전부를 거는 인류의 무지에 한껏 동조하며 사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.

가을이다! 계절마다 의미가 있겠지만, 가을이 의미 있는 건 다가오는 인생의 계절 겨울을 준비하며 자신을 버리기 때문일 게다. 낙엽이 떨어지는 아픔이 가슴을 시리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버리고, 밟혀지는 낙엽이 있기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 있을 것이다.

아직 앞마당에 떡 하니 베티고 있는 단풍나무는 푸르게만 느껴지는데 저 낙엽이 빛을 바래고 다 떨어져 양상한 가지만 남길 때면 가을바람에 실려갔던 내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져 있을 게다!

“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.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,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” - 전 12:1 (새번역)

대한예수교
장로회

갈보리교회

담임목사: 이태한
St. David'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. Grafton Auckland
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
Ph: 09 - 369-5077 Ph: 09-475-6312 www.calvary.org.nz

주일 1부 예배

오후 1시	인도: 이태한목사
전주	반주자
예배로 부름	시편 96:7-9
개회송	인도자
참회의 기도	찬양대
* 찬송	다함께
* 성시교독	다함께
* 신앙고백	다함께
찬송	다함께
대표기도	고성일집사
세례식	집례자
성경봉독	인도자
찬양대찬양	나무십자가찬양대
설교	기쁘게 가는 사람
찬송	이태한목사
현금기도	다함께
교회소식	인도자
* 응답송	인도자
* 축도	이태한목사

*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

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
◎ 5월 교회일지

선교 수요일:
5월 2일 (수)

어린이 주일:
5월 6일 (주일)

어버이 주일:
5월 13일 (주일)

성령강림 주일:
5월 27일 (주일)

◎ 5월 예배봉사자

예배안내 :
고성일

새신자 안내:
심경순/김광자

주차안내:
양봉욱/민광호

주방봉사
한상순/김윤숙/장태옥/
원미경/박제란

◎ 기도순서

이번 주 수요기도: 김철재 집사

이번 주 애찬기도: 이정인 집사

다음 주일 1부: 박덕철 집사

다음 주일 2부: 조온유 청년

5월 16일 수요기도: 남영수 집사

5월 16일 애찬기도: 장연식 집사

5월 20일 1부: 박병민 집사

5월 20일 2부: 김정민 집사

금주의 기도제목

- 국내: 지진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잘 적응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뉴질랜드 경제에 회복이 있도록,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이해관계 얹힌 갈등으로 국력이 소비되지 않도록, 모든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여 쇠퇴해가는 뉴질랜드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힘을 쏟도록.
- 교회: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배우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고 영적인 생활에 잘 적용하도록,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더하도록, 성도들 간에 더 큰 사랑과 배려 그리고 이해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. 비자와 가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협통함이 있도록.
- 국외: 구소련에서 독립한 아제르바이잔 교회는 정부에 종교단체로 등록해도 보안 요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종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마다 종교의 자유가 축소되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기도 어려운데 아제르바이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해 복음이 온 나라를 덮도록, 그리고 정치, 경제, 모든 영역에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.

